

## 재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본국 귀환 준비 경험

라이쑹히응\* · 이나윤\*\* · 김서현\*\*\*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재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의 취업 허가가 만료된 후 본국으로 귀환할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이에 국내 거주 중인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인 남녀 성인 5명을 대상으로 질적 사례연구를 활용해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 사례 간 분석에서 12개의 하위 범주를 찾아냈고, 그로부터 4개의 상위 범주를 확인하였다. 이는 '태어난 땅에서 다시 일굴 생업의 기를 갖추기', '이주로 멀어졌던 관계 회복할 의지 다지기', '한국 사회에 길들어져 걱정되는 고향 재적응하기', '재정착 힘들겠지만 주도적으로 미래 설계하기'였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재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귀환 준비 및 본국의 재통합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개선 방안과 실천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귀환 경험, 귀환 준비, 재통합 지원, 질적 사례연구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축약 및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제1저자, Happy Return Center in Cambodia, Electricity and Carpentry Work Training Course Coordinator, sokheanglay@gmail.com

\*\* 공동저자, 전북대, 사회복지학, 박사수료, 29168154@hanmail.net

\*\*\* 교신저자, 전북대, 사회복지학, 부교수, shkim717@jbu.ac.kr

## 1. 서론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이주는 삶의 안정 도모의 기회이자 생계유지의 수단으로서(IOM 한국대표부 2024), 최근까지도 더 나은 인생을 살려는 많은 이들이 이주노동자가 되어 새로운 터전을 찾아서 국경을 넘고 있다(IOM 2019b).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국내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E-9)<sup>1</sup>를 통해 적게는 3년에서 최대 9년 8개월까지의 체류하는데, 대개 내국인이 기피하는 제조업, 건설업, 농업 등 주로 노동 강도가 높은 직종에 종사한다(대한상공회의소 2023). 이는 국내 인력난 해소와 경제 성장에 직결될뿐더러, 이제 이주노동자는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하고 있다(유희연 2023).

이주노동자 수의 증가는 세계적 추세로, 한국에서도 매년 그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김나경 2015; 이정민 2024; 통계청 2024; McAuliffe and Oucho 2024). 특히 한국에 온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 도입 16개 국가 중 다수를 차지한다(경향신문 2022.09. 27). 연도별 출입국 통계 자료(2008; 2014)에 따르면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는 2007년 278명에서 2013년 1만 2,981명으로 6년 동안 약 40배가 증가하였고(연합뉴스 2013.03.05), 2024년에는 전체 33만 7,279명 중 4만 8,998명(14.5%)에 이를 정도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5; The Phnom Penh Post 2023). 나아가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자 함에 따라(손기운 2023) 향후 한국으로 일하러 오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리사락·차석빈 2020). 상술한 이주노동자들의 경제적 역할과 우리 산업 발달에의 비중 증가, 통계 수치 변화 추이 등으로 볼 때, 재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용허가제도는 국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기업이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이에 의하면 이주노동자들은 입국 후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3년+재고용(1년 10개월)]을 보장받게 되고, 재입국 특례 시에는 1회 재입국 후 다시 4년 10개월 내(최장 9년 8개월) 취업활동이 가능하다(국민권익위원회 2024).

이주노동자들은 일정 기간의 한국생활을 마치면 다시 원래의 삶과 본국에 있는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를 함축하는 ‘귀환’이라는 단어는 본래 ‘다른 곳에 있던 사람이 본래 살았던 곳으로 돌아오거나 돌아감(국립국어원 2024)’을 뜻하는데, 국제이주기구에서는 귀환을 ‘출발지로 되돌리거나 다시 끌려가는 행위와 과정’이라고 설명한다(ILO 2024). 즉, 이주노동자의 본국 귀환 준비는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기 전 타국에서 생활기반을 준비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는 법적으로 허용된 체류 기간에 낮은 한국에서 고군분투하며 지내는 가운데, 배운 기술을 활용해서 고국으로의 안정적인 재정착과 경제적 독립을 꾀하게 된다(김연홍·이성순 2019). 하지만, 이주노동자들 중 일부는 본국 귀환 후 달라진 생활환경, 대인관계, 경제적 수준 등으로 재통합에 어려움을 겪는다(김연홍·장신철 2023; Wickramasekara 2019). 게다가 임금 체불, 경제활동 목표 미달성 등으로 인해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도 본국 귀환을 미루기도 한다(유승희 2021). 이는 단순한 체류자격 위반을 넘어 개인적 삶의 불안정성을 고조하게 되며, 재정착 실패에 따른 사회적 비용 소모,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와 같은 사회문제를 초래한다(김나경 2015; Maksum 2021).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의 본국 귀환이 적시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의 사망사고, 불법체류로 인한 저임금 은폐, 장시간 노동이나 산업재해 문제, 혹은 열악한 일자리에 국한한 노동의 질적 저하 등 악순환을 유발하게 된다고 우려한다(윤자호 2021). 다시 말해, 이들의 안정적인 본국 귀환은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에 기여하리라고 사료된다(유희연 2023).

하지만 그간의 이주노동자 관련 연구에서 개인과 가족, 사회적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가 수행되었음에도, 대부분은 귀환 준비 단계에 주목하기보다는 한국생활 중의 애로사항 내지는 본국 귀환 이후의 삶에 관해서만 관심을 둔 편이었다. 더군다나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에 관한 연구는 수적으로도 매우 적다. 즉, 이 연구에서와 같이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본국 귀환 준비단계에서의 이슈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예를 선행연구에서 찾기는 매우 힘들다. 실제로 기존 이주노동자 관련 연구에서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본국 귀환 후 경

제활동의 어려움과 고립의 문제에 직면한다는 점이 보고되었다(김연홍·장신철 2023; Maksum 2021). 또한, 베트남 혹은 몽골 귀환 이주노동자가 본국에서의 재통합 실패를 겪는다거나(김나경 2015; Jang et al. 2023), 문화사회적 변화로 본국에서 심각한 정서적 위기를 경험한다는 사실(Brown 2016; Kunuroglu et al. 2015; Remennick 2021) 등이 국내외적 맥락을 기반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들은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에서 성공적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캄보디아 출신자의 특별한 인식과 경험이 반영된 논의는 아니기 때문에 본고에서 의도하는 바와 같이 재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본국 귀환 준비 경험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재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본국 귀환 준비 경험을 경제적 자립은 물론 양국의 생활과 문화 차이, 심리적 변화 등을 두루 고려한 바탕 아래 사례별 접근과 질적 비교 분석의 방식으로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한다. 이는 노동시장 내 차별 감소와 불평등 완화, 사회적 갈등 예방과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등을 위한 토대 마련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개인 차원뿐 아니라 인권 및 제도적 차원에서 양국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에는 이주노동자를 포용하는 사회정책 확대를 촉진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는 긍정적 효과로까지 연결되리라 판단한다. 이러한 논의는 이주노동자 당사자 개인의 사회 재적응과 건강한 정착은 물론 양국 기반 삶의 연속을 고려한 당사자 지원에도 유용할 것이다. 즉, 본 연구는 재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본국 귀환 준비 실상을 양국의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면서 점검하고 맞춤형 지원책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사회복지적 함의를 지닌다. 연구질문은 ‘재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본국 귀환 준비 경험의 의미를 질적 사례연구를 적용하여 맥락과 특성 이해를 토대로 밝혀낸다면 어떠하겠는가?’이다.

## 2. 문헌고찰

### 1) 이주노동자의 귀환 준비 필요성과 당면 문제

본국 귀환 전의 이주노동자는 심리적으로 복잡한 기분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Remennick 2021). 해외 경험과 변화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관점이 전과 달라지기 때문이다(Brown 2016). 이는 본국과 다른 문화적 배경 안에서 일상의 각 요소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된다거나 낮은 환경에 처해 자신의 신념, 가치관, 자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되는 이유와도 연관된다. 이주 이후 새로운 곳에 적응하며 문화사회적 이해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성장시키는 등 변화를 겪기도 한다(Haarman and Langevang 2021). 특히 초국가적 환경에 노출된 이주노동자들은 노동 과정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할 기회를 얻는데, 이 역시도 인생 전반의 맥락적 변동과 이어진다(Sener 2020). 또한, 새로운 환경과 도전에 신속하게 적응하거나 유연한 사고방식을 기르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신장할 수도 있다(Pérez Murcia and Boccagni 2022). 그 속에서 정체성 형성과 적응 능력 향상은 물론 사회문화적 맥락 탐색을 통해 이주 전보다 훨씬 긍정적인 일상 경험을 쌓게 되기도 한다(최종락·임상혁 2019; Sener 2020). 다만, 이주노동자는 자기 나라를 떠나 부적응하기도 함이 알려졌다. 즉, 이들은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는 중에 본국으로부터 거리감을 느낀다든지 고국의 규범과 가치관을 경직되게 고수하는 등의 내면의 변화를 겪기도 한다는 것이다(van Houte and Davids 2008).

한편, 이주노동자의 본국 귀환 준비 중에는 심리정서적 측면 외에도 모국과 다른 경제 체제에 노출되어 자원이나 자본 등의 확보와 활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증폭되기도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들의 본국 귀환이 저축, 본국의 부동산 투자, 사업 운영 등 노동이나 경제문제와 얽혀 삶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구성된다고 보고했다. 예컨대, 기존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가 본국 귀환 준비를 위해 소득의 일부 혹은 거의 전부를 자국으로 송금하거나 미래 사업에 투자하려고 의도함을 지적했다(McDonald and Valebzuela 2016; Nget 2022). 즉, 이들의 이

주노동이라는 선택과 행위의 목적 자체가 경제적 이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본국 귀환 역시도 그러한 맥락 아래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송금은 경제적 자원의 공급 방법으로써, 이주 전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귀환 후 성공적 재정착을 돕는 행위라고 해석된다(Chan 2014).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방식의 귀환 준비를 실천하여 과거 본국에서 누리던 삶의 수준보다 나은 정도로 살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양태가 비단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에만 해당한다기보다는 아시아권 노동자들이 대체로 본국 귀환 준비를 충분히 하기 힘든 현실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고 공통되게 우려했다. 예컨대,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은 돌아갔을 때 취업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여 본국 귀환을 피하거나 실제로 자국 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며(김나경 2015),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은 본국 귀환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못한 탓에 경제적 실패와 취·창업 악화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여 재이주를 준비하기도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김연홍·장신철 2023). 저축 부족으로 인한 두려움 역시 이주노동자들이 귀환 시기를 미루거나 결정을 철회하도록 만드는 요인이다(Thou et al, 2023). 이 같은 연구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본국 귀환 지연이 양국의 구조적 격차를 비롯하여 그들이 직면하는 경제적 압박의 심각성과 결부된다고 언급했다. 그에 더해, 개인 차원의 갈등, 제도 및 문화적 격차 등의 요소도 본국 귀환 준비에 있어 큰 장애물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례로, Kunuroglu 외(2015)는 이주민이 해외에 생활하면서 형성한 고향에 대한 이상적 기대가 현실과 충돌할 때 심리적 분열이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그로 인해 귀환 시 자아와 소속감 상실의 문제를 겪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이주노동자의 본국 귀환 준비 현실에는 경제 및 심리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있고(김경학 2024) 귀환 지연이나 결정 철회 등의 상황은 단선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주노동자의 귀환 준비와 관련한 문제는 복합적인 맥락과 결부된 것으로, 귀환 결정이나 선택과 연관된 현상은 주로 저축과 투자로 경제자본을 마련하거나 고용 및 사업,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활용하려는 행위로 드러난다. 실제로, 국내 공식 자료가 거의 부재한 현실에서 관련 사항을 보고한 태국의 자료

에 따르면,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83%는 이주를 끝내고 본국에 귀환한 후에 개인 사업을 시작하거나 고용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응답했음이 확인된다(IOM and ARCM Thailand 2019). 하지만, 일부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는 이주 목표 달성은커녕 태국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으로 낮은 삶의 질을 경험하고, 기술 숙련을 충분히 하지 못해 본국에 돌아가더라도 재취업에 유리함이 적다고 느껴 체류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알려졌다(VOA News 2020.10.12). 이러한 선행연구의 보고는 자국에서 원활한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미흡한 본국 귀환 준비로 인해 적시에 돌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수가 경제적 불안정과 심리적 두려움을 크게 겪는 상황임을 시사한다.

## 2)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국내 적응 상황과 특징

역사적으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은 1990년대 중후반 내전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경 국가로 이동하기 시작했다(Chan and So 1999). 주요 목적지는 태국, 한국, 말레이시아, 일본 등이었다(Hatsukano 2019; The Phnom Penh Post 2023.06.08). 이들은 체류하는 동안 본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타국에 적응하게 되며, 이질적이거나 다양한 문화와 취업의 기회를 접한다. 최근 캄보디아 정부가 발표한 통계수치에 따르면, 해외로 이주한 노동자의 수는 2024년 기준 130만 명 정도에 이르렀다(Khmer Times 2024.07.11). 국가별로 보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태국을 선택한 사람이 다수를 이루는 가운데 한국은 4만 9,000명, 말레이시아는 2만 2,000명이 노동 목적으로 이주했다(The Phnom Penh Post 2023.06.08). 같은 아시아권 내에서의 이주가 많았던 이유는 서구보다 입국 비자 발급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중에서 한국은 수용국 중에서 급여가 가장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VOA News 2019.01.26).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는 해외에서 경제적 여유를 축적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 본국에서 안정되게 살아갈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Ai et al. 2019), 그러한 점에서 한국은 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주노동자는 법적으로 비자 만료 후 반드시 귀환해야 하므로, 이들에게 한국은 아시

아권 문화를 공유하면서도 경제적 재정착과 본국 왕래 및 귀환 등이 유리한 지리적 조건이라고 풀이된다(성용은 2018).

한편,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에 관한 통계조사에 의하면 본국 귀환을 경제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계획한 이들의 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확인된다(IOM 2020). 소수의 연구이기는 하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귀환 준비율은 43%에 불과한 것으로도 파악된다(유재섭 외 2014).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미비한 본국 귀환 준비는 고국으로 가기 전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예컨대, 자국에 있는 가족을 돌봐야 하거나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큰 이주노동자 중 일부는 가족 부양에 따른 책임감에서 벗어나고자 타국에 더 오래 머물려고 의도하기도 한다(Thou et al. 2023). 더욱이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본국 귀환 준비에는 개인 사업도 포함되지만, 초기 사업을 시작할 비용, 운영과 관련한 지식과 기술 등을 충분히 보유한 이의 숫자는 미비한 편이다(Hatsukano 2019). 그뿐만이 아니다. 대체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는 문화적 측면의 준비도 불충분한 것으로 파악된다(Ellis 2015). 캄보디아와 한국의 상이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지내는 동안 이주노동자 스스로가 충분한 수준의 재정착과 재통합을 계획하기도 역부족으로 미래 불확실성에 내몰리기 쉬운 처지라고도 사료된다(김나경 2015; Maksum 2021; Nget 2022).

이같이 본국 귀환을 앞둔 재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임세영과 김연홍(2019)은, 이들이 위험한 작업 조건과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 속에서 생활하면서도 동료들과의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인내하는 면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여 이주노동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한국생활 중에 직면하는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극복하려는 이주노동자의 모습을 반영한다.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Blau와 Arnold(2024)는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본국 귀환을 두려워하며 이주 상태를 지속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개인적 차원의 긍정성보다는 캄보디아에 돌아갔을 때 수입 창출에 제약이 많다는 점이 불리한 고용 조건을 이겨내려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Sakulsri 외(2020)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이 가족에게 송금할 자금을 위해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감수하는 현실에 놓였다고 지적하고, 본국 귀

환의 시점까지도 안전이나 복지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버티는 상황임을 보고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모두 정리하면,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단순히 노동환경의 문제만 결부된 것이 아니라, 본국의 열악한 경제 사정, 한국에서의 네트워크 양상, 개별 안전과 복지 수준 등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구성되는 것이라고 분석된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이 본국 귀환을 앞두고 과거 살던 곳에서의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정체성, 소속감, 문화적인 요소 등과 현실 맥락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재적응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귀환 과정에서 자신과 본국을 다시 정의하기 시작하면서 자국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조화롭게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함이 확인된다. 즉, 이주노동자의 본국 귀환 준비 경험은 개인적이고도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동에 따른 정체성 변화, 문화적 다양성의 수용과 실천, 새로운 현실에의 적응 등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3. 연구방법

#### 1) 질적 사례연구

본 연구는 재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본국 귀환 준비 경험을 탐구하기 위해 Yin(2009)의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 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포함한다(이정빈 2018). 그중에서도 Yin(2009)의 질적 사례연구는 반복적인 논리를 사용해 개별 사례의 결과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현상의 경계와 맥락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건이나 상황 등을 규정하는 주요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접근법이다(Merriam 1988). 이 연구방법은 드러내려 하는 경험의 맥락과 현상을 구분하기 어렵거나 다차원적인 사례연구를 탐색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Creswell 2007),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가능한 동시에 사례 기반의 공

통된 주제를 간명하게 제시하는 데에도 적합하다(Merriam 1988). 특히 재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한국이라는 정해진 시·공간의 맥락 아래 그들의 방식으로 본국 귀환 준비 경험을 하며(김기화·김영순 2018),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이들은 결혼이나 교육 등 다른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배경자들과는 다른 양상으로 삶을 살아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정민(2024)의 경우처럼 특정한 국가 출신 이주노동자의 특수한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맥락을 차이점과 공통점의 지속적 해석과 비교하는 질적 사례연구 방법이 유용하리라 판단했다. 즉, 이주 동기와 개인적 조건, 한국생활 맥락의 양상 등의 이질성을 반영하면서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특성을 공통되게 드러내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 2) 연구참여자 선정

재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본국 귀환 준비 경험을 탐구하기 위해 눈덩이 표집으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참여자 선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는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로서, 한국 정보로부터 정식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후 우리나라에 거주하며 노동하는 자이다. 둘째, 연구참여자의 연령은 25세에서 39세 사이로 정했다. 이 연령대는 개인적 변화와 가정 안에서의 다양한 발전을 지속하는 시기로, 활발한 노동활동과 더불어 사회에서의 책무를 수행하는 나이에 해당한다. 다만, 다양한 일상생활 맥락을 이해하고자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는 고려하지 않았다. 셋째, 연구참여자의 직업 유형은 비전문 분야 건설, 제조, 농업, 가축 등 현실적으로 국내 이주노동자가 E-9 비자를 통해 근무 가능한 직종으로 한정했다. 넷째, 이주노동자 중 향후 본국 귀환 계획이 구체적인 자료, 가능하면 그 시점이 3년 이내인 자를 찾았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마다 다른 미래 계획이나 기대를 아우르는 생각 간의 비교, 그와 관련한 전반적 지원책 등을 두루 모색하고자 했다. 다섯째, 이주노동자의 경제활동 실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적 제약을 두지 않고 전국적으로 연구참여자를 확보하고자 했다. 참고로, 이렇듯 전국적으로 심층 면담에 적합한 사람을 구하더라도 연

구참여자 소개 및 초기 접촉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다수 활동하는 공장이나 농장 등이 있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더 많이 모집되었다. 최종 선정된 연구참여자들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구분	A	B	C	D	E
국적	캄보디아	캄보디아	캄보디아	캄보디아	캄보디아
성별(나이)	여(30)	여(28)	여(26)	남(28)	남(38)
한국 입국년도	2021년	2023년	2021년	2020년	2015년
귀환 예정시점	2년 이내	2~3년 이내	2년 이내	1년 이내	1년 이내
비자형태	E-9	E-9	E-9	E-9	E-9
근로유형 (현재근무지)	제조업 (의류 공장)	농업 (딸기 농장)	농업 (상추 농장)	제조업 (가구 공장)	서비스업 (제조업)
활동 지역	전라도	경상도	전라도	전라도	경기도
최종학력	고졸	대졸	대졸	대졸	고졸
결혼여부 (자녀유무)	기혼 (자녀 없음)	기혼 (자녀 1명)	미혼	미혼	기혼 (자녀 1명)
귀환계획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미래 노동계획	창업	재취업	창업	가구 창업	미용실 운영

연구참여자는 전원 캄보디아 국적자였으며, 우리나라 입국년도는 2015년 1명, 2020년 초반은 4명이었다. 본국 귀환 예정시점은 1~2년 안팎이었다. 이들은 전원 E-9 비자를 취득했고, 한국에서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였다. 활동 지역으로는 경상도 1명, 경기도 1명, 전라도 3명이었다. 최종학력은 고졸 2명, 대졸 3명이었다. 기혼은 3명, 미혼은 2명이었고, 기혼자 중 2명은 본국에 자녀를 두었다. 이들의 미래 노동계획이 어떠한지 살펴보면, 창업을 원하는 자는 4명,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1명이었다.

### 3) 자료수집

본 연구는 재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본국 귀환 준비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일대일 심층면담 형식으로 자료를 수집했다(김인숙 2016). 심층면담은 연구참여자 1인당 3회로 수행했으며, 소요시간은 약 60~90분이었다. 장소는 연구참여자의 주요 활동지나 거주지 인근이었다.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고자 연구참여자 선정 과정 및 초기 접촉 과정에서 이주배경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캄보디아어와 한국어가 모두 능통한 이를 연구진으로 포함해 구성하였고, 심층면담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이 모국어로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주된 대화는 캄보디아어로 수행하였고, 일부는 한국어로 소통한 후 전사해 번역했다. 그리고 한국어로 작성한 녹취록을 연구참여자들과 공유해 확인받는 절차를 거쳤다(Ai et al, 2019). 또한, 캄보디아 전문 통번역사에게 의뢰해 연구진이 번안한 한국어 표현과 뉘앙스가 적절한지 이중 점검했다. 그와 더불어,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태도나 표정을 별도로 메모하였고, 연구자 노트를 작성해서 당시 분위기를 통해서도 당사자가 경험한 현실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했다(김아영 외 2016). 면담은 반구조화된 형식이었으며, 연구질문은 본국 귀환을 결심한 이유, 귀환 전 본국에서의 가족생활 및 관계상의 특이점, 경제활동 이력, 한국에서의 주된 어려움이나 적응 양상, 이주노동자로서의 애로점이나 달라진 점, 귀환계획 및 준비와 관련한 고민이나 제약, 본국 재정착 이후의 기대 등이었다. 면담 중 대화가 불충분했던 경우에는 메신저 혹은 전화로 연구참여자들과 추가로 교류해 자료를 보완했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Yin(2009)의 질적 사례 연구방법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자료를 분석했다. 첫째, 심층면담으로 확보한 녹취록을 자격을 갖춘 통역사로부터 검수받아 정확성을 확보한 이후, 연구자들은 한국어로 번역된 수집한

연구자료의 전사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재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구술한 진술의 맥락과 본국 귀환 경험에 관한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둘째, 다섯 가지 사례연구 분석기법 중 패턴매칭, 설명하기, 시계열 분석, 사례통합 분석기법을 주로 적용해서 자료를 깊이 있게 파악하였다(신은혜·정혜숙 2018). 또한, 재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각 사례를 개별적으로 분석한 바탕 위에서 집단적으로 특별하게 도드라지는 재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본국 귀환 준비 경험의 특성을 밝혀내고자 했다. 이때에는 연구자 간 분석 결과를 대조하면서 사례마다 드러나는 차이점에 주목하였으며 시간 경과에 따른 사건들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했다. 셋째, 재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의 공통된 경험과 관련이 있거나 의미 있는 주제를 찾고 서로 연관되는 진술을 모아 하위 범주로 구조화했으며, 이를 다시 추상화하여 상위 범주로 추출했다. 끝으로, 원자료와 범주화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원자료의 맥락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노력했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참여자가 제공한 구술자료를 인용하여 되도록 풍부하게 기술하고자 노력했다.

## 5) 연구의 타당성

본 연구는 Guba와 Lincoln(1982)이 제안한 신뢰성, 의존성, 중립성, 전이성을 기준으로 연구의 타당성을 구하고자 했다. 첫째, 연구자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구참여자와 친밀히 교류하며 상호작용했고, 이들의 한국 내 진술한 경험을 존중함과 동시에 경청했다.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할 때는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구해 구체적인 사례 소개나 맥락 설명을 재차 요청하여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이해하였다. 둘째, 연구자는 의존성 확보를 위해 진술 내용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과 편견을 줄이고자 노력했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 경험이 많은 공동연구자가 함께 모여 정기 회의를 통해 분석 내용을 검토했다. 셋째, 중립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분석 결과에 반영되지 않도록 재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연구자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최소화하면서 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질적 자료 분석의 특성상 범주 간 경계가 다소 모호하거나 일부 진술이 여러

범주에 중복되어 해석될 가능성에 대비해 상호 비판적인 논의를 거쳐 범주를 도출하고 분석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려 했다. 넷째, 연구자는 전이성 확보를 위해 연구참여자가 아닌 재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에게 추출한 분석 결과의 맥락을 설명하며 검토를 요청했다. 이 과정을 통해 잘못 번역했거나 해석한 내용을 정정하고 연구결과의 적용과 납득 가능성을 높였다.

## 6) 윤리적 고려

연구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연구진 소속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연구 승인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은 윤리적 절차를 따랐다(2024-04-047-003).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주제, 면담 참여와 분석방법, 결과물 발표 과정, 사례 제공 계획 등을 자세히 설명한 후 연구참여자의 자발적 동의를 확보했다. 또한, 연구에 함께하는 동안 불편하거나 과거 회상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중단이나 참여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이에 더해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분석과정에서 연구참여자 식별이 가능한 민감한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익명 처리할 것임을 알렸다. 이 외에도 연구가 완료된 후 연구 자료는 3년 동안 보관하고 그 후 완전히 폐기할 것을 약속하였다. 모든 이들에게는 참여의 감사를 표하기 위해 회기별로 답례했다.

## 4. 연구결과

### 1) 사례 내 분석

연구참여자 A는 30세의 기혼 여성으로 대학교에 2년간 재학 후 중퇴하였다. 한국에서는 의류 공장에서 일하면서 급여의 약 절반을 가족에게 송금하며, 그 나머지는 저축하고 있다. 이 연구참여자는 한국에서의 편의점 운영과, 제과제빵 경험에 바탕을 두어 귀환 후 본국에서 빵집이나 마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렇

지만 캄보디아의 열악한 치안 문제로 귀환이 불안하며, 고향 사람들의 성별 불평등과 귀환자에 대한 편견을 우려한다. 이 연구참여자가 지닌 다른 연구참여자와 유사한 특성은 한국에서 배운 취업기술을 본국 귀환 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개선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다른 연구참여자들에 비해 캄보디아에 돌아갔을 경우 사회환경에 재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크다.

연구참여자 B는 28세의 기혼 여성으로 회계학을 전공했으며, 현재는 딸기 농장에서 일하며 급여의 반절을 가족에게 송금하고 있다. 이 연구참여자는 창업을 계획 중인 연구참여자 A와 달리, 캄보디아의 한국 회사에 재취업을 하고자 한다. 또한 훗날 캄보디아에 돌아가서도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활용하며 생활하고자 부지런히 배움에 임하는 면도 발견된다. 이는 앞의 사례와 유사한 점이다. 그녀는 이러한 귀환 준비 활동이 고향에서 보낼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그렇지만, 가족과의 소원한 관계와 경제적 책임감 때문에 캄보디아 귀환에 스트레스는 매우 크다. 본국과의 법률 차이에 혼란스러움도 느낀다. 그래도 귀환하면 한국 문화를 주변에 전하며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자 의도한다.

연구참여자 C는 26세의 미혼 여성으로 대학교를 졸업한 뒤 이주노동자가 되었다. 그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한국에 왔다. 현재 농장에서 일반 업무와 통역 일을 하고 있다. 이 연구참여자는 급여의 반절 정도를 가족에게 송금하며 뿌듯함을 느낀다. 그는 캄보디아 동료들의 소통을 도우면서 사업 자금 마련과 경영 지식을 배우고 싶어 한다. 이 연구참여자는 기혼 여성인 연구참여자 A, B와는 다르게 미혼 여성으로서 결혼에 대한 가족의 압박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귀환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캄보디아어 능력 저하가 걱정이다. 그렇지만 고향에 돌아갈 생각에 불안하고, 한편으로는 체류 연장도 고민 중이다. 이 연구참여자는 본국 귀환을 준비하고 있으나 동시에 본국 귀환이 두려워 체류를 지속할지 가장 크게 염려하는 면이 전체 연구참여자 중 두드러진다.

연구참여자 D는 28세의 미혼 남성으로 대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했다. 이러한 학력 조건으로 한국의 초기 언어적 적응이 다른 연구참여자에 비해 수월한 편이었다. 이 연구참여자는 가족의 경제적인 문제로 한국으로 이주해 교실 가구 공장에서 외국인 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그는 급여의 절반 정도를 가족에게

송금하고 있으며, 재정 상황이 나아지면 캄보디아로 돌아가 소규모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연구참여자는 미혼임에도 연구참여자 C와는 다르게 결혼에 대한 압박이 적고 자기 계발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체류하는 동안 긍정적으로 인식한 한국 문화와 생활방식을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싶어 한다.

연구참여자 E는 한국 생활 9년 차인 38세 기혼 남성으로, 캄보디아에 있는 가족 부양과 취업을 위해 한국에 이주하였다. 그는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처음부터 이주의 주요 목적은 가족의 생계유지였기 때문에 임금의 절반이 넘는 정도를 본국에 송금한다. 전체 연구참여자 중 가장 오랜 기간 한국 생활을 했던 그는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시작하면서, 캄보디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준비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전까지는 특별히 본국 귀환 준비를 한 적이 없었으며, 주변 유사한 이주노동자들 역시 딱히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받으며 고향에 돌아갈 준비를 한 적을 목격할 일도 없다. 그는 다른 연구참여자들처럼 캄보디아에 돌아가는 일을 두렵게 여기며, 약 10년간 한국 생활에 적응한 상태에서 다시 캄보디아에 재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매우 크다.

## 2) 사례 간 분석

사례 간 분석으로 재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본국 귀환 준비 경험에서 공통 주제들을 발견한 결과, <표 2>와 같이 12개의 하위 범주와 4개의 상위 범주를 확인했다. 이들의 본국 귀환 준비 경험의 맥락을 밝히는 상위 범주는 ‘태어난 땅에서 다시 일굴 생업의 기를 갖추기’, ‘이주로 멀어졌던 관계 회복할 의지 다지기’, ‘한국 사회에 길들여져 걱정되는 고향 재적응하기’, ‘재정착 힘들겠지만 주도적으로 미래 설계하기’였다. 이들은 경제적 측면의 재적응뿐만 아니라 관계, 문화, 시간 차원에서도 본국 귀환 준비를 경험하고 있었다.

표 2. 분석 결과

하위 범주	상위 범주
미래 직업을 갖기 위한 기술 숙련 캄보디아에서 구직하기 위한 준비 내 나라에서 사업 꾸러갈 자원의 마련 다시 일할 때 부족한 생활비 메우려는 노력	태어난 땅에서 다시 일할 생업의 기틀 갖추기
오랜 시간 떨어져 어색해진 가족 관계 유지 가족 안에서의 역할 부담감으로 무거워진 어깨 정리 필요한 본국에서의 이전 대인관계	이주로 멀어졌던 관계 회복할 의지 다지기
돌아가면 감당해야 할 불만족스러운 캄보디아 생활양식 한국의 평온함 익숙해서 돌아가기 꺼려지는 고향 한국보다 편협한 고국의 사고방식 다시 직면하기	한국 사회에 길들여져 걱정되는 고향 재적응하기
나와 다른 캄보디아 생활방식 포용할 만큼 단단해진 마음 이주노동에서 배운 긍정의 힘을 내 주변에 알릴 기대감	재정착 힘들겠지만 주도적으로 미래 설계하기

### (1) 태어난 땅에서 다시 일할 생업의 기틀 갖추기

#### ① 미래 직업을 갖기 위한 기술 숙련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이라는 수용국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 직업에 필요한 기술 숙련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이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필요한 조건을 고민하였다. 이 점은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생활 중에 새로운 기술과 전문성을 함양하길 희망한다고 보고한 연구와도 유사하다(임세영·김연홍 2019). 즉 연구참여자들의 본국 귀환 준비 경험 양상은 저마다 달랐지만, 캄보디아에 가서 일할 기틀을 세우는 것은 유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들은 창업과 관련된 정보를 중요하게 여기며 탐색하였고, 귀환 후 수용국에서 습득한 기술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이어가고자 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참여자가 A는 ‘한국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캄보디아에서 독특한 맛의 빵을 만들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국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캄보디아 현지 식재료와 조리법을 접목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국의 선진적 제빵 기술을 익혀 창업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마찬가지로 연구참여자가 E는 캄

보디아에서도 한국에서 배운 미용 기술과 능력을 활용하여 창업할 수 있기를 바랐다. 이처럼 이들은 이주 이전의 불확실한 미래를 변화시키려고 의지하였으며, 과거보다 더 잘살아보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특히 한국의 직장에서 쌓은 경력과 지식, 관리 및 리더십을 강조하며 자신의 본국 귀환 후 캄보디아 재적응을 밝게 전망했다. 결국 연구참여자들에게 한국에서 기술을 숙련하며 본국 귀환을 준비하는 일련의 경험은 고국에서의 경제적 토대를 다지는 계기이자 앞으로의 인생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시간에 해당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중략) 사업주와 쉽게 이야기하게 되고, (중략) 다른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제품을 찾는 방법..., 저는 사업주와 직원 관리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C).

## ② 캄보디아에서 구직하기 위한 준비

연구참여자들은 본국 귀환 후 캄보디아에서 다시 구직하려면 변화하는 고용 시장에 맞게 조건을 갖추고 경제적인 능력을 대내외에 효과적으로 알리는 준비 작업이 필요하리라고 인식했다. 캄보디아의 경제는 특정 산업에만 의존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산업구조와 발전 정도가 불안한 편이며, 노동시장 기회가 적어 교육 수준이 낮거나 경제활동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유급 일자리를 찾을 기회도 부족하다(Blau and Arnold 2024). 이러한 배경 때문에 대부분은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부단히 교육을 받고 언어를 배우면서 역량을 키우고자 애썼다. 이를테면, 연구참여자 A, C, D, E는 사업에 관심이 있었고, 연구참여자 B는 사업경험이 없어 재취업을 선택하기도 했다. 근로 소득이 고정된 임금과 일정한 복지료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이도 있었다. 반면, 연구참여자 B는 다른 사례와 달리 본국에 있는 한국 회사에 재취업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는 구직 과정에 동반되는 여러 요구 사항을 고려해 목표 직업에 다가가려는 주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면서 자존감이 신장되었고 노동자로서의 능력도 커졌다고 여겼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재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이 본국 귀환 이후 구직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조건을 한국에서 먼저 갖춰서 자

신의 목표 직업에 다가갈 기회를 얻기 위해 분투함을 보여준다(Maksum 2021). 즉,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 발전할 유리한 상황을 확보해서 돌아가야 본국에서 더 큰 수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이런 식으로 배달 파트타임 일을 더 하면 수입도 생기고..., (이런 경험으로 캄보디아에서 일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E).

### ③ 내 나라에서 사업 꾸려갈 자원의 마련

연구참여자들은 본국 귀환 후 캄보디아에서 안정적으로 취·창업을 하려면 필요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고국에서의 원천적인 자원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노동시장 재진입의 불안정성 등 본국 귀환 이후 이들이 직면할 복합적인 현실을 깊은 두려움으로 인식했다. 그 때문에 대부분은 본국에 돌아가기 전에 사업체 운영이나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공통되게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사업 계획의 단계부터 정보를 취득하거나 자본금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며, 본국에 있는 가족을 통해 노동시장과 관련된 사정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자국에서의 창업을 원하는 연구참여자 D는 ‘부모님한테 자주 연락하면서 우리 사정이 어떤지 사전에 조사하려 한다’라고 말하며, 고국에 있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해 캄보디아 노동시장에 대해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처럼 본 연구참여자들은 개인 사업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투자 계획 수립, 사업 위치 선택, 회의 진행과 협업 인프라 구축 등 여러 활동을 시작하고 있었다. 한편,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고향의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만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정보와 상황을 교환하는 전략을 선택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보 누설로 불이익이 초래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제 가족을 통해 노동시장과 관련된 개인 사업 정보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 언니랑 가족이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C).

통상 캄보디아에서는 가족 부양을 위해 계절에 따라 소규모의 토지나 산림 등 자연환경에 의존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한다(Blau and Arnold 2024). 즉, 상황에 따라 가족을 부양하는 데에 있어 가용할 자원의 질과 양이 다르고, 그에 따라 일상생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경쟁적인 자국의 고용시장에서 충분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주 상황에서 기술과 언어 능력과 관련한 자격증 취득이 유리하다. 하지만 해외 현지의 노동시장에서 취득한 자격과 업무 경험을 본국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이주노동자로서의 이점이나 풍부한 이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이다(McDonald and Valebzuela 2016). 재취업시 이주 경험이 그다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이주노동자들이 본국 귀환 후 경제수준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음을 우려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Cambojanews 2024.05.21). 다시 말해, 한국에서 쌓은 이력이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다는 것은 재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본국 귀환 준비에서의 커다란 제약이었다.

#### ④ 다시 일할 때 부족한 생활비 메우려는 노력

연구참여자들은 본국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수입 부족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예컨대, 이들은 현금 흐름, 예산, 투자 등의 재무 관리를 통해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갔다. 통상 본국 귀환 준비는 이주노동자에게 중요한 과제로, 대부분 경제적 자금 마련을 필두로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귀환 후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수입 부족으로 본국 정착에 경제적 곤란을 겪는 예가 허다하다(Ianioglo et al. 2021). 고국에서의 성공적인 재정착을 위해서는 단순히 새로운 목표 설정을 넘어, 일일 소득 관리에 대한 지식과 재정 관리 기술을 함양하는 것이 요구된다. 실제로 그러한 면이 연구참여자 D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급여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가족에게 송금하고 그 나머지를 저축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추후 본국에서 진행할 사업 운영 시 소득의 불확실성을 대비한 전략이었다. 이처럼 대부분은 한국에 있는 동안 저축한 돈이나 구입한 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입의 공백을 대비하고자 애썼고, 체류 기간 동안 최대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간을 쪼개 재테크 공부를 하거나 아르바

이트를 하는 등 경제활동에 매진했다. 이들은 사업 수입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비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그와 같은 평균 수입의 치밀한 관리는 경제 어려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주요한 방편이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저축한 돈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개인 사업을 위한 땅을 샀는데요. 그 외에도 시간을 나눠서 다른 직업을 찾고 아르바이트로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E).

## (2) 이주로 멀어졌던 관계 회복할 의지 다지기

### ① 오랜 시간 떨어져 어색해진 가족 관계 유지

보통 해외로 이주하게 되면 본국 생활뿐 아니라 가족 및 인간관계도 변화한다. 이를 반영하듯 본 연구참여자들은 오랜 시간 친밀한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는 중에 특히 어색해진 가족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고심하였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가족 관계의 변화는 성별과 결혼 여부에 따라 다르게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기혼 여성인 연구참여자 B는 ‘캄보디아에 돌아가면 우리 아이랑 사이가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 있을지 걱정된다’라며, 한국에서의 생활로 인해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어도 바쁜 일상 속 틈을 내어 자녀들과 자주 연락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한국 체류가 끝나면 가족과 다시 살기를 원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C는 부모님과 조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할 계획을 세우며 가족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자신의 사업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들은 오랜 해외생활로 인해 부득이 어색해져 버린 가족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가족 체계를 건강하게 만들고자 의도했다.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본국의 가족은 이주노동자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평안함을 제공하며, 이러한 가족 관계의 개선은 귀환 후 당사자의 행복과 삶의 만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occagni and Kusenbach 2020). 이 점이 연구참여자들에 의해 다시 한번 밝혀진바, 이들은 가족이나 친척 등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가 재통합에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성공적인 본국 귀환과 재

정착을 위해서는 어색한 사이를 다시 돌려놓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여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가족의 책임자이자 자녀로서..., 왜냐하면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나이가 들면서 정신 건강이 이전보다 약간, 조금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특히 그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는 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겠어요(D).

## ② 가족 안에서의 역할 부담감으로 무거워진 어깨

연구참여자들은 이주한 상황에서도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지만, 이에 따른 걱정과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감정도 동시에 느꼈다. 책무를 다하는 중에도 양국 간의 평균 소득의 차이로 인해 자국에서 빈곤하게 살까 봐 우려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연구참여자 B는 고향에서의 소득 차이를 강조하며 귀환 시 생활비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질 것이라고 구술했다. 그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감으로 인해 가족의 만남이 즐겁지 않다고 호소했다.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남성 이주노동자에 비해 결혼과 가족돌봄이라는 성역할에 대한 부담을 훨씬 크게 느끼고 있었다. 그에 관해 연구참여자 C는 가족의 경제적인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과 가족으로부터 받는 결혼과 출산의 압박에 관해 걱정했다. 보통 가족 구성원으로서 맡은 역할 부담은 본국 귀환을 고민하고 회피하도록 만들기도 한다(Zulfiu Alili and Adnett 2021). 실제로 본 연구참여자들은 본국 귀환 준비 과정에서 가족 부양책임을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느꼈고, 그러한 상황이 잘 해소되지 않거나 압박이 심한 경우 귀환 시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할 것을 깊이 우려하였다.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아이가 있으면 더 힘들어질까 봐 좀 그렇죠. (중략) 생활비가 두 배로 좀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A).

제가 캄보디아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결혼할 파트너를 찾아오라고 하신다면, 우선은 그녀를 직접 만나봐야 해요. 부모님의 요청을 정확히 모두 다 따를 수는 없을 거예요. (중략) 그런 것은 좀 어렵네요(D).

### ③ 정리 필요한 본국에서의 이전 대인관계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귀환을 준비하면서 본국에서의 이전 대인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재정립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에 살면서 고향에 있는 친한 지인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고 여겼다. 때로는 단순히 상호작용이 줄어드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관계 자체가 단절되기도 했다. 이 같은 대인관계의 양상 변화는 일상생활에서 삶의 원동력이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삶에 있어 관계의 재정립이라는 새로운 갈림길에 서게 만드는 것으로 풀이된다(McDonald and Valebzuela 2016). 실제로 연구참여자들도 그 점을 공통되게 언급했다. 예를 들어, 연구참여자 A와 C는 해외 생활로 인해 지인들이 질투 섞인 시선을 보였다고 말했으며, 상대의 부정적 감정을 경계하면서 건강하지 않은 대인관계는 미연에 정리하길 원한다고 했다. 반면, 연구참여자 D는 미래에 대비하며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확대에 집중하였다. 다만, 이들은 모두 오랜 친구나 친척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겠다고 의지를 보였으며, 과거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지더라도 미래를 위해 대인관계를 회복하거나 적극적으로 맺으려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했다. 즉, 본국 재정착 준비 과정에서 대인관계 재정립이 필수적이며, 이는 본 이주노동자들에게 있어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적 자본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된다.

고향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과 사이가 멀어졌잖아요. (중략) 어떤 사람은 그들보다 좋아하거나 싫어할 수 있잖아요. (중략) 앞으로 그들이 필요할 수 있어서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면 괜찮아 보일 것 같아요(E).

### (3) 한국 사회에 길들여져 걱정되는 고향 재적응하기

#### ① 돌아가면 감당해야 할 불만족스러운 캄보디아 생활양식

국내 환경에 길들여진 연구참여자들은 한국과 대비되는 고국의 불만족스러운 문화적 규범이나 비효율적 행정 시스템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데에 부담감이 크다고 보고했다. 또한, 한국의 편리한 상황에 익숙해진 상태라서 이주 전 캄보디아 생활이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게 기억된다고도 했다. 이에 관해 기존 연구에서는 선진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이주배경자의 경우 어색한 느낌을 겪거나 부적응하기 쉽다고 지적했다(Zhou and Tang 2021). 연구참여자들도 그 점을 언급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캄보디아와 한국의 사회문화적 수준 차이가 심한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외국 생활은 개인의 습관과 정체성을 변화시키는데(Sener 2020), 본 연구참여자들 역시 체류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가 많아 한국에 이미 익숙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로 인해 이들은 귀환 준비 경험을 하면서 고향에서 생활하며 겪게 될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예상해 걱정이 깊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연구참여자 C, D, E는 고향에 돌아가서 살아내야 할 현실을 또 다른 차원의 위협으로 여겼으며, 본국 귀환의 순간이 부담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슷하게 묘사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전기나 수도 등 각종 자원이 부족하거나 극심한 생활 소음이 해소되지 못하고 쓰레기를 전혀 분리수거를 하지 않은 캄보디아의 낙후된 현실 등을 우려의 이유로 설명했다. 이 점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이 해외와 본국의 생활 수준의 결과로, 본국 귀환에 망설임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환경을 말하자면, 음악이나 노래 같은 파티를 할 때 소음이 나고, 특히 불안정한 상황도 많아요. (중략) 남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아요(B).

캄보디아에서는 파티나 모임 행사가 있으면 크게 노래를 부르고, 큰 소리로 지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 집 주변에서도 들릴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아무도 (민원 제기) 할 수 없고...(E).

② 한국의 평온함 익숙해서 돌아가기 꺼려지는 고향

삶의 기반을 위협하는 고향의 안전 문제와 사회적 불안정성은 장기간 한국에서 평온하게 생활한 연구참여자들로 하여금 본국 귀환을 망설이도록 작용했다. 한 곳에서 느끼는 안정감이 깊어지면 궁극적으로는 삶 전체에서 인식하는 만족감이 증가한다. 특히 보안과 인프라를 갖춘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은 단순한 안정감을 넘어 인생 전체의 만족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Kunuroglu et al, 2015). 하지만, 캄보디아의 경우 전기, 수도, 도로 및 철도 교통시설 등 제반 사회 경제 인프라 부족으로 경제적 위험 정도가 높다(이창근·주용식 2018). 실제로, 이러한 캄보디아 실정과 상반되게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안전하고 평안했음을 언급했다. 반면, 캄보디아로 돌아간다면 다시 취약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기본적인 안전조차 보장받기 어렵겠다고 두려워했다. 이 점은 이들이 오랫동안 한국이라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두드러지게 경험한 면이었다.

(한국은) 늦은 밤에도 아무 곳이나 마음대로 다닐 수 있지만, 캄보디아에서는 낮이든 밤이든 밖에 나가면 좀 안전하지 않을걸요. (중략) 한국에서는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카메라에 기록된 증거를 확인할 수 있지만, 캄보디아에서는 녹취를 통해 증거가 있더라도 사용할 수도 없어요(C).

캄보디아는 사회적으로 부패 문제가 심각하여 정치 권리 및 시민 자유 지수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가로 평가되기도 한다(이창근·주용식 2018). 이러한 환경적 맥락은 본 연구참여자들이 캄보디아의 높은 부패 실정이나 불투명한 법 절차와 같은 사회 제도적 위험 때문에 본국 귀환 자체를 염려하며, 한국의 현실과 본국 상황을 대비하면서 귀환 후 직면해야 할 상황을 미리 걱정하는 사실과 연관된다. 실제로도 이들은 캄보디아의 열악한 치안 상황이 두렵게 여겨지며, 그들의 귀환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한국에서 누린 안온함에 비추어 볼 때 고향의 불안정한 환경에 부담감이 극심함을 반영한다.

## ③ 한국보다 편협한 고국의 사고방식 다시 직면하기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서 극심한 가치관 변화를 겪었으며, 그로 인해 고국의 사고방식이 편협하다고 느꼈다. 그 때문에 본국 귀환 후 불편할지도 모를 상황을 미리 예상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문화, 종교, 언어, 한국인의 사고방식 등이 자신의 정체성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했다. 일부는 캄보디아와 한국 간의 문화 및 생활방식의 차이를 극명히 깨닫고 그로 인해 불편함을 크다고 토로했다. 이를테면, 연구참여자 B는 체류 기간이 짧았음에도 양국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고향에 돌아가더라도 낯선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캄보디아어를 사용하지 않아 모국어 구사 능력이 저하 된 점에 대해 본국에서의 사회적 배제를 우려했다. 체류 기간이 가장 긴 연구참여자 D 역시 한국 문화가 익숙해진 만큼 한국어로 소통하는 일이 더 자연스럽다고 여겼고, 다시 캄보디아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한국어의 잦은 사용으로 비난받을까 걱정했다.

누군가가 “나는 한국까지 갔는데 월급이 약 100달러 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만 줬다고?”라고... 50달러를 주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중략)  
“한국까지 가서 일했는데, 이렇게 돈이 없다고 말하냐?”고 할 수 있어요(C).

크메르어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캄보디아 사회에서는 언어를 섞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C).

캄보디아 속담에 ‘우물 안에서만 살려는 개구리(ក្របីក្នុងរូង៖ A frog in a well shaft)’라는 말이 있다. 이는 제한된 환경에서만 살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의미로 (Gartrell 2010), 특정 공간에서만 살아왔을 경우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여 해외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이해가 결여될 수 있음을 함축한다. 무엇보다도 장기간의 한국 생활은 그들의 내면을 변화시켰으며 포용력을 확장케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신장한 언어능력과 사고력이 오히려 본국 귀환 이후에는 적응을 가로막을 수 있겠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4) 재정착 힘들겠지만 주도적으로 미래 설계하기

##### ① 나와 다른 캄보디아 생활방식 포용할 만큼 단단해진 마음

연구참여자들은 장기간 한국이라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다양한 문화적 요소와 생활방식에 노출되었고, 이러한 경험은 그들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캄보디아에 살 때에는 일상에서 딱히 변화를 겪었던 적이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매 순간 탄력성을 키워야 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삶은 고국 귀환 시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생활방식을 갖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을 떠난 후의 생활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본국에서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대비하였다. 이들은 한국 물건이나 생필품을 확보한다거나, 달라진 생활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주의하는 식으로 귀환을 준비했다. 예를 들면, 연구참여자 A는 자신의 삶과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고국에서 위험한 환경에 다시 노출되거나 사고나 위협이 발생할 경우에는 외출을 가능하면 하지 않겠다고 변화한 인식을 드러냈다. 이와 유사하게 연구참여자 D는 주변 사람들의 혐오와 차별을 걱정하며 캄보디아에 돌아갈 일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재통합과 재정착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 대적하기 보다는 위기와 갈등을 회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본국으로 귀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면서, 귀환 후의 삶이 한국에서의 일상과 크게 다르더라도 마음을 열고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모든 연구참여자는 귀환 이후 변화할 현실을 수용하며 고향에 재정착하기 위한 진통의 시간에 대비하려 했다. 그리고 재통합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한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자국의 생활방식을 이해하고 다름을 포용할 것이라고도 다짐했다.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캄보디아에서) 살아야 하므로..., 복잡하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몇 달 지난 후에는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E).

## ② 이주노동에서 배운 긍정의 힘을 내 주변에 알릴 기대감

연구참여자들은 긍정적 문화를 본국 사회에 환원하려고 하였고, 캄보디아에 돌아가더라도 사회적 재통합을 이루고 주체적인 삶의 재건을 하고자 목표하였다. 이들은 과거 단지 경제활동이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더 많은 요소를 고려한 복합적인 이유로 한국 이주를 선택하였다. 이는 van Houte(2014)의 지적과 같이 개인과 가족의 안전, 경제적 기회, 사회적 환경, 문화적 측면 등을 포함하여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이주민이 되기로 결정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역동적으로 삶을 살아내려고 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 이는 사람들이 해외 이주생활을 통해 문화적 배경과 차이를 존중하며 소통하는 방식을 체득한다는 Haarman와 Langevang(2021)의 연구와 유사하다. 일례로, 한국문화를 선망하는 연구참여자 D는 한국 체류 중 익힌 분리수거와 ‘빨리빨리’ 문화를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귀국 후 이와 같은 문화를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알려 함께 실천한다면 생활이 더욱 윤택해지리라고 믿었다. 다른 이들도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받아들이면서 사고방식이 급변했을뿐더러 안정적 경제 기반 마련과 고국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동 전략을 익혔다고 보고했다. 이렇듯 연구참여자들은 본국 귀환 준비 자체가 캄보디아 사회 변화를 촉진하고 한국문화 전파를 심화하는 등 다른 차원과 이어질 것으로 기대함이 확인된다.

다른 사람들이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서만 한국에서 배운 문화를 재적용할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배운 좋은 습관과 행동들을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해요(B).

그러니까 저는 한국 생활 동안, 배운 생활방식과 법 준수의 중요성을 주변에 먼저 전달하고, 많이 변경할 수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충분해요. 특히 한국 미용실 것처럼 활동을 빠르고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거죠(E).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재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본국 귀환 준비 경험을 심도 깊이 이해하고자 연구참여자 5명을 선정하며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해 분석했다. 연구결과, 사례 내 분석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상황과 맥락을 비교분석할 수 있었으며, 다시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여 4개의 상위 범주와 12개의 하위 범주를 발견했다. 상위 범주는 '태어난 땅에서 다시 일할 생업의 기틀 갖추기', '이주로 멀어졌던 관계 회복할 의지 다지기', '한국 사회에 길들여져 걱정되는 고향 재적응하기', '재정착 힘들겠지만 주도적으로 미래 설계하기'였다. 이를 약술하면, 연구참여자들은 본국에서 경제활동을 재기하려고 한국에서의 교육 훈련과 직장 경험을 바탕으로 직업적 기반을 다지고 있었다. 동시에, 한국생활 중에 소원해진 대인관계 회복과 가족부양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분투했다. 하지만, 이미 오랜 한국 체류로 이국 생활에 익숙해진 연구참여자들은 본국의 문화와 생활방식에 다시 적응하는 것을 우려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캄보디아에서의 재정착이 힘들더라도 본국의 문화를 수용하며 이주노동을 통해 겪은 한국의 긍정적인 문화를 알리는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자 의도했으며 주체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려 했다.

이에 토대한 제언으로서 첫째, 재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성공적인 본국 귀환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포괄적인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예컨대, 자국의 노동시장 정보, 직업 동향, 창업 교육 및 멘토링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캄보디아의 생활 기반을 재정립하기 위한 귀환 목표를 설정했으나, 한국에서 별다른 본국 귀환 준비 지원을 받은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모국 정부의 귀환 정책을 제대로 활용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구성된 귀환계획에 의존하였다. 이들은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성공적인 귀환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지만, 열악한 네트워크와 실행력으로 귀환 후 필요한 사회적 자원이나 지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재이주나 귀환 지연을 고려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캄보디아 고용시장에 맞는 조건을 갖추고 경제적인 능력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과정이 필요함을 절감했다. 즉,

귀환 준비 과정에서 요구되는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체제가 부족하므로 이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영역 연계에 기반한 통합적 본국 귀환 준비 지원 서비스 확대가 요청되며, 그간의 이력과 변화를 유의미하게 환기하고 한국 의존도를 점차 줄이며 재적응하도록 도와야 한다.

구체적 지원 방안으로, 본국 귀환 이후의 경제적 자원, 고용 조건, 취업 알선 등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고, 국가 간의 적절한 역할 배분을 통해 이주노동자가 안정적인 상태로 재적응하도록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가족의 책임자로서 주부양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Puri and tzenia 1999). 이러한 실상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한국생활 종료와 본국 귀환이 하나의 연속된 적응과 발달단계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적이다. 특히 가장이자 노동자인 이들이 한국생활과 본국 귀환을 파편화하여 인식하지 않고, 총체적인 인간적 삶의 맥락에서 그간의 경험과 변화를 뜻깊게 활용하면서 다음 단계의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및 서비스 접근은 향후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2022)와 주한 네팔대사관은 네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자발급, 여권연장 및 갱신, 귀국지원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같은 사례는 국가 간 협력이 이주노동자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보여준다. 이처럼 지자체에서는 이주 국가 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이들의 본국 귀환 준비 지원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의 결과물이 이주노동자의 성공적인 귀환 후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송출국인 캄보디아 정부가 귀환 노동자의 재정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 국제협력단과 같은 국제개발 기관이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하여 이주노동자 지원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 당사자의 재통합 실패에 관한 두려움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양국 노동환경의 연계성 강화와 이주노동자의 삶의 질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재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본국 귀환을 할 수 있도록 귀환 준비 전 심리 상담 확대가 필요하다. 이는 귀환 예정자가 가족

문제, 본국의 상황 등을 사전에 대비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개입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미시적 관계의 변화나 가족 내에서의 책무 수행에 따른 압박 등으로 본국 귀환을 앞두고 두려움이 컸다. 또한,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본국 귀환 준비 경험이 쌓여갈수록 귀환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더욱 깊이 체감함도 확인했다. 이러한 상황이 미해결된 채로 귀환하게 된다면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에 수월하게 재정착하기보다는 이질감을 느끼며 부적응할 수 있다(Ellis 2015; Kunuroglu et al. 2016). 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친밀한 사람들 속에서의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거나 원주민과의 관계에서 종전과 같이 인정받지 못할까 봐 걱정할 수도 소지도 크다. 아무리 이러한 점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공식적 지원이나 외부적 개입이 부재하다면 미시체계나 가정환경에의 재적응은 위태로울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상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제로 기능하여 한국 사회가 그들의 권리와 복지를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한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한국의 인권 보장과 사회적 책임 준수의 선례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한국과 캄보디아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주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리라고 사료된다.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가 한국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캄보디아 귀환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심리 및 사회화 관련 재적응 상담을 당사자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국제이주기구(2019a)에서도 지역사회 내 임파워먼트 축진을 위해 강조한 사안이다. 이 같은 상담은 이주노동자가 귀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고 자기결정권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또한,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해법을 세움으로써 본국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재통합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 예컨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캄보디아 유엔연구기금(2020)은 태국에서 귀환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심리사회적 상담을 제공해 귀환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한 바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를 향한 송출국 차원의 구체적인 심리 지원이 귀환자들의 재적응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해서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은 이러한 상담 서비스가 귀환 과정에서 단절되지 않고 송출국에서 지속적으로 연계, 강화될 수 있도록

록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편으로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참여구조를 마련하여 그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당사자의 실제 욕구를 긴밀히 담은 세부 법령과 정책 제시로 이주노동자 지원의 내실을 다질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귀환을 준비하는 이주노동자 간의 교류 활성화와 상호 지원 확대 목적의 집단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이는 귀환 전 교육과 세미나, 워크숍 등의 형태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해당 활동은 이주노동자들이 집단 구성원 간의 소통을 독려 및 활성화해 유사한 본국 귀환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본국 귀환 전 다양한 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고 여러 각도로 서로의 문제해결 방안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새로운 인맥을 구축하는 기회이자 귀환 후 사회적 재적응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중국에는 본국에서 보유 및 활용 가능한 자원 확보와 관계 기반 재통합에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이 점은 사회적 자본 이론(Bourdieu 1986)에 따라 충분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본국 재정착 성공에 주요하다는 사실과 결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한국과 다른 본국의 거주 조건의 차이, 불충분한 공공시설, 위험한 보안, 문화 규범 등 다양한 요인을 떠올리며 귀국을 염려했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은 본국 귀환을 앞둔 이주노동자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집단 프로그램 참여나 상호작용 확대를 토대로 미리 상황을 예견하면서 정보와 자원을 나눈다면 적응력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서로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귀환의 두려움을 줄이면서 재적응과 재통합 과정에서의 역량을 서로 환기하고 삶의 긍정적 의지를 제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간 이주노동자의 재적응 혹은 재정착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부족했다. 이는 현재 캄보디아에서 수립된 이주노동 정책을 수용국과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제약과도 연관된다.

따라서 재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귀환 준비 단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층적인 집단 활동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미 EPS 외국인고용지원(2025)에서는 본국 귀환 이주노동자 대상으로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본국 귀환 준비를 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정

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보다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 확대 및 홍보가 필요하리라고 사료된다. 이는 수용국 내에서의 적극적인 안내에 더해, 송출국인 캄보디아 정부가 귀환 예정 자국민에게 이러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참여를 독려할 때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귀환 전 고국에서의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IOM(2019b)이 제안한 방식의 그룹화된 교육과 워크숍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다. 이러한 활동은 사회적 연대감 형성에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본국 귀환 준비에 따른 어려움이나 고민 해소, 공동 문제해결 등을 토대로 안정감을 다지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특히 귀환 예정인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향후 재적응을 미리 준비하고 고립감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천적인 접근(IOM 2016)이 요구된다. 그와 더불어,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이같은 집단적 차원의 활동과 교류, 교육 등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예컨대, 귀환을 앞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의 경험을 현지 문화 규범과 통합할 수 있게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 및 확보하여 활동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고, 한국 구성원과의 지속적 협력은 물론 본국의 지역 주민과의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포용적인 커뮤니티 활동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은 재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안정적인 본국 재정착과 통합은 물론 개인의 한국 이주노동자로서의 오랜 경험이 분절되지 않으면서 본국에서의 전인적 발달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재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본국 귀환 준비 경험을 각국의 현실과 문화적 맥락을 반영했다. 동시에 이주노동자가 비자 종료 시점의 귀환 준비 경험에 중점을 두어 한 인간으로서 이주배경 현실과 결부한 변화와 발달의 면모를 심층적으로 조망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수용국인 한국과 송출국인 캄보디아의 이원적 차원에서 이주노동자의 본국 귀환을 긴밀하게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에 관한 연구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세부 조건 중 연령, 성별, 지역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구성한 제약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 집단을 더욱 세부화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근로 경험이나 직업 유형별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탐색한 후 그 결과를 정책과 서비스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 본국 귀환 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주노동자를 질적으로 탐구한다면  
개입의 효과까지도 풍부하게 밝혀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교신: 김서현(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shkim717@jbnu.ac.kr)

Correspondence: Seohyun Kim(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Jeonbuk National University)(shkim717@jbnu.ac.kr)

2025.04.16 접수, 2025.04.23 심사, 2025.05.26 게재확정

### 참고문헌

- 경향신문, 2022.09.27, [단독]캄보디아 노동자들이 겪은 594편의 ‘일그러진 코리안드림’,  
<https://www.khan.co.kr/article/202209270948001>(검색일: 2025.05.20).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국립국어원, 2024, 검색어: 귀환, <https://stdict.korean.go.kr>(검색일: 2025.02.10).
- 국민권익위원회, 2024,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해 국내 인력난 해소, <https://www.acrc.go.kr>(검색일: 2025.05.20).
- 김경학, 2024, 한국에서 귀환한 네팔 이주자의 노동과 건강 경험, *남아시아연구*, 29(4), 1-41.
- 김기화·김영순, 2018,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영역별 사회복지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여성학연구*, 28(1), 155-184.
- 김나경, 2015, 베트남 귀환이주노동자의 재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 노동이주 경험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아영 외, 2016, 혼자 쓰는 연구논문, 서울: 학지사.
- 김연홍·이성순, 2019,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고용허가제 현장컨설팅 사업의 의의와 발전방안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31, 173-212.
- 김연홍·장신철, 2023, 고용허가제 귀환근로자의 귀국 후 삶에 대한 질적연구: 필리핀 귀환 근로자를 중심으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7(1), 75-113.
- 김인숙, 2016, 사회복지연구에서 질적방법과 분석, 서울: 집문당.
- 대한상공회의소, 2023, 외국인근로자 고용·활용 제도 개선 13대 종합건의, <https://eum-seonggi.korcham.net>(검색일: 2025.02.27).
- 리사락·차석빈, 2020, 캄보디아 근로자의 산업급식 선택속성 중요도-만족도 분석, *외식경영연구*, 23(1), 287-306.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8, 2007년도 출입국 통계연보, <https://www.immigra->

- tion.go.kr(검색일: 2025.05.20).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4, 2013년도 출입국 통계연보, <https://www.immigration.go.kr>(검색일: 2025.05.20).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5, 2024년 12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https://www.immigration.go.kr>(검색일: 2025.05.20).
- 성용은, 2018, 아시아 지역의 안보 위협: 테러의 위협성, 한국융합과학회지, 7(4), 195-204.
- 손기운, 2023, 자유무역협정 상 무역규제규정에 대한 연구, 무역학회지, 48(5), 167-186.
- 신은혜·정혜숙, 2018,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폭력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2), 175-204.
- 연합뉴스, 2013.03.05, 작년 고용허가제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 최다, <https://www.yna.co.kr> (검색일: 2024.12.22).
- 유승희, 2021,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의 정책불응에 대한 고찰과 정책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비판사회정책, (73), 151-177.
- 유재섭 외, 2014, 외국인근로자 고용만료에 따른 귀국지원사업 분석,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16(4), 451-459.
- 유희연, 2023,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지역분포 현황과 특성, 세종: 국토연구원.
- 윤자호, 2021, 한국 이주노동자 실태와 고용허가제의 현황: 비전문취업자(E-9), 방문취업자(H-2)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42, 1-35.
- 이정민, 2024, 이주노동자의 '지역주민-되기' 과정과 배움의 의미,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3(1), 323-345.
- 이정빈, 2018, 질적 연구방법과 상담심리학, 서울: 학지사.
- 이창근·주용식, 2018,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국가위험도 영향요인 비교 분석, 지역연구, 34(2), 65-77.
- 임세영·김연홍, 2019,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역량 습득에 대한 질적연구, 직업교육연구, 38(1), 65-94.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2022, 제주도 거주 네팔인을 위한 귀국 지원 프로그램, <http://jejumwc.kr>(검색일: 2024.12.20).
- 최종락·임상혁, 2019,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훈련 특성이 취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직업훈련의 자기효능감과 참여 동기를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32(4), 737-758.
- 통계청, 2024, 국가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도입현황, <https://kosis.kr>(검색일: 2025.01.04).
- Ai, S. et al., 2019, A narrative study on Cambodian migrant workers' competency acquisition in Korea.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8(1), 1-28.
- Blau, G. and D. Arnold, 2024, Debt, land and labour: Cambodian migrant workers' precarious livelihood strategies. *Global Social Policy*, 24(2), 203-224.

- Boccagni, P. and M. Kusenbach, 2020, For a comparative sociology of home: Relationships, cultures, structures. *Current Sociology*, 68(5), 595-606.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Richardson, J. G.(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NY: Greenwood Press.
- Brown, H., 2016, Immigrant bodily incorporation: How the physical body structures identity. *Mobility and Transnationalism, Social Problems*, 64, 14-29.
- Cambojanews, 2024.05.21, Cambodians flock to Korea due to limited jobs, salaries back home, despite govt's positive spin. <https://cambojanews.com>(검색일: 2024.05.21).
- Chan, C., 2014, Gendered morality and development narratives: The case of female labor migration from Indonesia. *Sustainability*, 6(10), 6949-6972.
- Chan, S. and S. So, 1999, Cambodian labour migration to Thailand: A preliminary assessment, Phnom Penh. Cambodia Development Resource Institute, 11, 1-17.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Ellis, D. R., 2015, *Returning to the Familiar, or the Foreign? Expectations and Experiences of Self-Initiating Repatriate New Zealanders*. Doctoral Dissertation, Massey University.
- EPS 외국인고용지원, 2025, 귀국자 네트워크, <https://eps.hrdkorea.or.kr>(검색일: 2025.02.20).
- Gartrell, A., 2010, 'A frog in a well': The exclusion of disabled people from work in Cambodia. *Disability and Society*, 25(3), 289-301.
- Guba, E. G. and Y. S. Lincoln, 1982, Epistemological and methodological bases of naturalistic inquiry. *Educational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Journal*, 30(4), 233-252.
- Haarman, A. and T. Langevang, 2021, Capitalizing on translocal affiliations: Configuring capital in returnee entrepreneurship. *Global Networks*, 21(4), 703-722.
- Hatsukano, N., 2019, Returned migrant workers in Cambodia: Motivations for moving and economic reintegration. ERIA Research Project Report, 19, 57-72.
- Ianioglo, A. et al., 2021, Return migration in the republic of Moldova: Main issues and opportunities. *International Migration*, 59(3), 162-176.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24, *Labour Market Reintegration of Return Migrant Workers and Former Refugees in Origin Countries: Concepts and Definitions*. <https://www.ilo.org>(검색일: 2025.01.15).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19a, *Glossary on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Law*. <https://publications.iom.int>(검색일: 2025.01.15).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19b, Reintegration Handbook Forthcoming. <https://publications.iom.int>(검색일: 2024.12.16).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20, DTM Cambodia-Returning Migrants Survey. <https://dtm.iom.int>(검색일: 2024.12.16).
- IOM and ARCM Thailand, 2019, Assessing Potential Changes in the Migration Patterns of Cambodian Migrants and Their Impacts on Thailand and Cambodia. <https://roasiapacific.iom.int>(검색일: 2024.12.16).
- IOM 한국대표부, 2024, 세계이주보고서 2024, <https://republicofkorea.iom.int>(검색일: 2025.01.04).
- Jang, K. et al., 2023, Low-skilled return migrants as adult learners: A case of Mongolian migrants returning from South Korea. *Adult Learning*, 34(1), 3-14.
- Khmer Times, 2024.07.11, Govt Provides Robust Assistance to 1.3 Million Migrant Workers. <https://www.khmertimeskh.com>(검색일: 2024.07.11).
- Kunuroglu, F. et al., 2016, Return migration. *Psychology and Culture*, 8(2), 3-28.
- Kunuroglu, F. et al., 2015, Consequences of Turkish return migration from Western Europ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49, 198-211.
- Maksum, A., 2021, Indonesian post-migrant workers: A challenging problem for human security.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4(1), 2-10.
- McAuliffe, M. and L. A. Oucho, 2024, World Migration Report 2024. Genev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IOM).
- Mcdonald, J. T. and M. R. Valebzuela, 2016, How does skills mismatch affect remittances? A study of Filipino migrant workers.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35(1), 216-231.
-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 in Educ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Nget, K., 2022, *Return and Reintegration of Cambodian Migrant Workers After Working Abroad*. Master Thesis, Ohio University.
- Pérez Murcia, L. E. and P. Boccagni, 2022, Of home-comings and home-scales: Reframing return migration through a multiscalar understanding of home. *Global Networks*, 22(3), 499-513.
- Puri, S. and T. Ritzema, 1999, *Migrant Worker Remittances, Micro Finance, and The Informal Economy: Prospects and Issues*. Working Paper 21,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Remennick, L., 2021, No return migration among Israeli academic families. *Population*

- Space and Place, 28(1), 1-12.
- Sakulsri, T. et al., 2020, Exploring the experiences of Cambodian labor migrants: The journey to Thailand under the framework for bilateral agreements. *Journal of Mekong Societies*, 16(1), 1-25.
- Sener, M. Y., 2020, Adaption and identity shift after migration and return migration: Turkish qualified returnees from Germany and the US. *Border Crossing*, 10(1), 3-28.
- The Phnom Penh Post, 2023.06.08, Thais Reassure Cambodia's Migrant Workers Can Stay. <https://www.phnompenhpost.com>(검색일: 2025.01.10).
- Thou, P. et al., 2023, Remittance and migrant workers in Thailand: A case study of parents in Sangke District of Battambang province, Cambodia.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Faculty of Development Studies*, 5(1), 28-34.
- UNFPA Cambodia, 2020, Rapid Assessment on Social and Health Impact of COVID-19 Among Returning Migrant Workers in Cambodia. <https://cambodia.unfpa.org>(검색일: 2024.09.26).
- van Houte, M., 2014, Moving Back or Moving Forward? Return Migration After Conflict. Doctoral Thesis, Maastricht University.
- van Houte, M. and T. Davids, 2008, Development and return migration: From policy panacea to migrant perspective sustainability. *Third World Quarterly*, 29(7), 1411-1429.
- VOA News, 2019.01.26, In Poor Cambodian Town, A Job in South Korea Changes Lives. <https://www.voanews.com>(검색일: 2025.02.05).
- VOA News, 2020.10.12, Research Shows High Rates of Depression, Stress Among Cambodian Migrant Workers. <https://khmer.voanews.com>(검색일: 2025.02.05).
- Wickramasekara, P., 2019, Effective Return and Reintegration of Migrant Workers with Special Focus on ASEAN Member States. The ILO ASEAN Triangle Project, Bangkok: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Yin, R. K., 2009,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4th ed.). Thousand Oaks, CA: Sage.
- Zhou, J. and S. Tang, 2021, Attitudes towards rural migrants and their influence on return migration in China. *Population, Space and Place*, 28(3), 1-24.
- Zulfiu Alili, M. and N. Adnett, 2021, Return migrants in Albania: The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gain'.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25(3), 1761-1777.

## Experiences in Preparing for the Repatriation of Cambodian Migrant Workers from South Korea

Sokheang Lay\* · Nayun Lee\*\* · Seohyun Kim\*\*\*

**Abstract** This study mainly aims to study how Cambodian migrant workers prepare return plans to their home country once their work permits in South Korea have expired. As part of this study's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ology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ive Cambodian migrant workers, both male and female, residing in South Korea. The study identified twelve sub-categories from the research findings, which were further synthesized into four overarching categories through cross-case analysis: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rebuilding life in one's country of origin,' 'Strengthening the determination to restore relationships that were significantly impacted by migration,' 'Readjusting to the hometown amidst concerns of being influenced by Korean culture,' 'Envisioning a future despite the challenges of resettlement.'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is paper proposes enhancements to social welfare policies and action strategies to facilitate the return of Cambodian migrant workers from Korea and support the effective reintegration of their home country.

**Keywords** Cambodian Migrant Workers, Repatriation Experience, Returning Plans, Reintegration Support, Qualitative Case Study

---

\* First Author, Happy Return Center in Cambodia, Electricity and Carpentry Work Training Course Coordinator, sokheanglay@gmail.com

\*\* Co-Author, Jeonbuk National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Ph.D. Candidate, 29168154@hanmail.net

\*\*\* Corresponding Author, Jeonbuk National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Associate Professor, shkim717@jbnu.ac.kr